사항 경문시ITH

1 스피돔에 가면 '승부' 가 있다. ② 스피돔에 가면 '문화' 가 있다

③ 스피돔에 가면 '나눔' 이 있다

세계 최대의 돔 경륜장인 스피돔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 대를 맞이했다. 스포츠동아는 한국 경륜의 메카인 스피돔의 첨 지 3일간 경주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다. 가파른 경사의 벨 로드롬을 터질듯 부풀어 오른 허벅지를 지닌 경륜선수들이 질 주하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이제 경륜 은 국민적 자전거붐, 다양한 문화행사, 소외계층과의 나눔 활 동 등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과 한층 밀접해진 '생활경륜'의 시

단 시설, 숨은 명소, 가족과 즐기기 좋은 이벤트, 사회 나눔활 동 등 스피돔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재미와 알찬 정보를 소개하 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첫 회로 그 자체가 큰 볼거리인 스 피돔과 이곳을 찾는 경륜팬을 돕는 스피돔의 '도우미'를 소개

손에 땀을 쥐는 하루 14번의 은빛 승부

3만명 수용의 '세계 최대' 돔 경륜장 가파른 곡선 주로 질주 스릴감 만점

입문자도 베팅 재미 만끽 '초보교실' 혹시 게임 중독? '희망길벗'에 상담

●잠실야구장보다 큰 스피돔

광명시에 있는 스피돔을 처음 찾아온 사 람은 웅장한 외관에 탄성을 지른다. 마치 거대한 은색 UFO가 내려앉아 있는 듯한 스피돔의 모습은 경륜 선수가 쓰는 헬멧을 형상화한 것. 이처럼 눈길을 확 끄는 개성 넘친 외관 덕분에 스피돔은 2007년 경기 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스피돔에서 하루 열리는 경주는 총 14 회. 오후 1시15분에 시작해 대략 오후 7시 쯤 마지막 경주가 끝난다. 스피돔을 방문 하는 경륜 팬은 하루 평균 4800여명 (2012년 기준)이다. 장외 지점인 전국 18개 의 스피존까지 더하면 경륜 경주에 환호하 는 팬은 하루 4만5000여 명에 달한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인 스피돔의 관 람석은 9574석이고 최대 수용인원은 3만 명이다. 매머드급 규모답게 총사업비 2315억원이 들어갔다.

스피돔의 건축면적(가장 넓은 바닥면 적)은 4만m²(1만 2000평),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은 7만6000m²(2만 3000평)이다. 연면적을 비교하면 4만 5000m²의 서울 잠실야구장보다 크다. 경 주장 길이를 비교해도 220m로 125m인 잠실야구장보다 길다.

스피돔 경주로 한 바퀴의 길이는 333.3m. 트랙은 직선이 4도, 곡선은 34.45도의 경 사가 져 있다. 처음 스피돔을 찾은 사람들 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른 벨로드롬 의 경사에 놀란다. 추월을 위해 가파른 벨 로드롬을 달리는 선수들은 마치 스키장을 활강하는 스키어처럼 보일 정도다.

● 경륜 초보도 고수로 만들어주는 '초보교실'

경륜장을 찾아 베팅을 처음 할 경우는 경주 예측부터 베팅방식까지 아무래도 모 든 게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초심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돔경륜장인 광명 스피돔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경주 모습. 연면적이 서울 잠실야구장보다 더 큰 초대형 시설인 스피돔은 경 륜 외에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내내 열리는 복합문화·레저 공간이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구매전용 카

드이다. 최신

좌에 현금을



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피돔 은 이런 초보 경륜팬 을 위한 지원 시스템 을 갖추고 있다.

스피돔 2층의 초보 교실은 경주가 있는 날 오전10시 40분부 터 오후 7시까지 운영

경륜에 입문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출주표와 배당률 보기, 구매표 작성, 그린 카드 사용방법, 승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곳의 안내를 받으면 누구나 재 미있게 경륜 베팅을 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7161명, 2011년에는 8486명이 스피돔 초보교실을 통해 경륜 팬으로 입문

●건전하게 경륜을 즐기기 위한 '그린카드'

경륜을 건전하고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그린카드가 제격이다. 그린카드는 전용 단말기에서 편리하게 경주권을 구매하는



그린카드 전용 '그린존'

이체한 뒤 사용한다.

그린카드를 쓰면 한 사람이 여러 장의 구매 카드를 발급받는 중복발급을 막을 수 있고, 최장 30일까지 구매금액과 구매 건 수를 확인할 수 있다. 10만원 한도 내에서 스스로 구매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기능도

사인펜으로 일일이 구매표에 기입하거 나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서야할 필요가 없 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스피돔에는 그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총 122대 설치돼 있다.

●몰입 걱정되면… '희망길벗'이 돕는다

경륜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되면 희망길벗을 방문해보자. 사행성게 임중독 예방 및 상담, 연구, 교육, 홍보, 사



게임중독 치료 '희망길벗'

경륜뿐만 아니라 경정,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불법도박, 주식 등 사행성 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다수 방문해 도움을 받고 있다. 스피돔의 희망길벗 본점은 개인 및 집단 상담실을 갖추고 있으며, 사행성 게 임중독 전문 의료시설을 비롯한 상담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후관리 등 통

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문치료기관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스피돔(Speedom)은?

정식 이름은 '광명 스피돔'. 경기도 광명 시 광명동에 있다. 4계절 경륜 경기가 가 능한 세계 최대 돔 경륜장이다.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2003년 2월에 착공, 3년 만인 2006년 2월에 개장했다. 경륜 외에 다양한 공연 이벤트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 스피돔에는 이런 곳도 있다

경륜 보면 타고 싶네…'이륜이 플라자'



스피돔 '이륜이 플라자'에서 어린이들 이 무료로 대여한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

경륜 경기를 보다 보면 자 신도 모르게 자전거가 타고 싶어진다. 하 지만 무거운 자전거를 스피 돔까지 운반하 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 스

19

피돔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 해 주는 '이륜이 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데이트족을 위한 커플자전거, 가족을 위한 패밀리자전거, 앉아서 타는 트라이커 등 다양한 자 전거가 있다. 경륜 경기가 있는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불법 복제 만화가 앱스토어 1위 등극 '논란'

인기만화를 무단 복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일부 앱은 유료 앱 분야 1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17일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일본 만화 '원피스'를 무단복제한 '원피스+'가 유료 앱 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만화의 국내 디지털 유통권은 대원씨아이가 참여한 합작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 앱은 엄연한 불 법복제 저작물이다. 만화 저작·유통권자들은 불법 저작 물 앱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앱을 통과시킨 애플 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네이버

폭행 사망 강모씨 형부 공형진 "가해자 곧 잡힐 것" 연예 걸스데이 지해 탈퇴, 당분간 4인 체제로 활동한다 싸이, 휴잭맨과 말춤 삼매경…'월드스타의 남다른 친화력'

최강희 감독의 '뻥축구'는 잘못된 선택이었나? 스포츠 디트로이트 3연승, WS 진출 눈앞

불법조업 중국선원이 맞은 '40mm 고무탄'은? 청주 60대 식당 종업원 피살…범행장면 CCTV 찍혀 좁고 어둡고 두려웠던 서울 골목길…대변신 시작되다

김연경 "배구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싸움 포기 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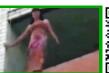
연리 3%대 '생애첫대출' 2.5조 풀린다 경제 로또 당첨 최다 출현번호는… '40' 세금감면 앞두고 9월 주택거래 '뚝'…전월대비 44% ↓

모닝·레이도 긴장하는 폭스바겐 업은 어떤 차? "귀청소 하지마세요"…귀지, 귓속 박테리아 배출 역할 사랑에 관한 대중문화의 5가지 미신

인기 동영상 발차기로 자살 막은 구조대원

진짜 클라이밍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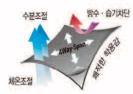
하체근육에 맞춘 5단계 입체과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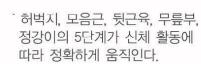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 3M반사패치가 야간운동시 외부 사고를 방어해준다.

· 4way 파워스트레치가 탄력성과 테프론코팅으로 방수,방습력을 높였다.

· 슬림바이어스 디자인으로 등산, 산책, 싸이클링, 배드민턴 등 스 포츠활동 물론 일상복에서도 중 년의 품위를 세워준다.

등산인구가 늘고 등산복이 생활화되면서 클라이밍바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움직임 이 편하니 생활복으로 이용되었고, 본 목 적이 상실된 클라이밍 디자인바지가 유행 처럼 번졌다. 본시 클라이밍바지의 클라이 머는 '등산가' 란 뜻으로 기능과 실용성을 필수로 하는 옷이다. 정통 클라이밍 바지 는 본 목적에 맞게 무늬만 조각낸 것이 아 니라 재단부터 봉제가 일반 바지와 다르 다. 특히 암벽이 많은 우리나라의 산은 팔 과 다리를 쫙쫙 펴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 어야 하기에, 무늬만 클라이밍이 아닌 진 짜 클라이밍바지를 입어야 한다.

움직이는 근육에 맞춰 5단계 재단

틀리다. 일반 바지는 앞판, 뒷판으로 나뉘 지만 바이어스는 5조각으로 나뉜다. 다리 데 근육에 따라 움직임이 다르다. 다리를 펼때 허벅지 근육은 오므라들지만 종아리 근육은 펴진다. 반대로 다리를 굽힐때 허 의 암벽등반까지 가능하다.

벅지는 펴지고 종아리는 오므라든다. 따 라서 근육이동에 따라 원단의 스트레치 방 향도 바꿔줘야 한다. 앞판, 뒷판의 통재단 은 그럴 수 없다. 바이어스바지는 5단계 입 체과학재단으로 허벅지, 모음근, 허벅지 뒷근육, 무릎부, 정강이부로 분할하여 근 육이동에 따라 스트레치의 방향을 바꿨다. 다리를 쫙쫙 뻗어보라. 앞으로 뻗어도 옆 으로 뻗어도 위로 뻗어도 바지가 다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암벽등반이 가능한

바이어스 클라이밍바지 - 정통 클라이밍의 계보를 잇는다.

근육에 따라 반응하는 4-way스트레치

신사복 바지보다 기능성바지가 편한 이 유는 스트레치에 있다. 바이어스바지는 4-way 파워스트레치를 사용하였다. 바 바이어스 클라이밍 바지는 재단부터가 지를 잡고 어느 방향이든 잡아당겨봐라. 쭉쭉 늘어나면서도 금새 제자리를 찾는다. 크레오라의 고탄력은 오래 입어도 무릎이 근육은 허벅지, 종아리, 장딴지로 나뉘는 나오거나 엉덩이가 쳐지지 않는다. 특수처 리된 테프론코팅은 변화무쌍한 가을철에 오염, 방수, 투습력까지 높였다. 수직 형태

슬림바이어스 다지인

바이어스 클라이밍 바지는 일상에서도 빛 난다. 앞라인은 신사복 느낌이 나도록 하 였고, 옆과 뒷라인에서 클라이밍의 기능성 을 잡아냈다. 신체 밀착도를 조정한 슬림 바이어스 패턴은 중년의 품격보장으로 일 상복, 산책, 싸이클, 조깅시에도 입도록 실 용도를 높혔다.

출시기념 한정 할인판매

바이어스 클라이밍 바지는 2012년 신제품 으로 10월 말일까지 한정적으로 약 40% 할인판매한다. 남 M, L, XL, XXL이며 여 S,M,L 사이즈이다. 빅사이즈의 경우 주문 생산이 가능하다.

제품명 바이어스 클라이밍바지 가 격 1장 ₩129,000 → ₩79,800 티1+바지1 ₩268,600 → ₩130,000 세트구매시 냄새없는동양말 1 증정)

제품신청 1544-0242 로드워크 www.roadwalk.co.kr